

# 포스코, 발전용 연료전지 국산화

핵심설비 스택 제조공장 착공 ... 총 700억원 투입 100MW 생산

포스코가 발전용 연료전지 국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700억원으로 연료전지 스택 100MW 공장을 착공했으며, 부지는 4만3000㎡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연료전지 연료공급과 전력변환을 담당하는 BOP(Balance or Plant)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BOP 공장에 이어 수입에 의존해온 연료전지 핵심설비인 스택 제조공장이 완공되면 연료전지 국산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본격 시행되는 2012년까지 디젤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전원용 연료전지와 건물용 연료전지를 출시하고, 2015년부터는 대형선박의 보조동력을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준양 회장은 기념사에서 “연료전지 국산화와 실용기술 개발, 국내 부품소재 공급기업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4월7일 포항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에서 정준양 회장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료전지 스택제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에너지 자회사인 포스코파워를 통해 2007년부터 연료전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국내 12개 지역에 22.5MW 규모의 연료전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7>